

의대없는 전남, 지난해 중증응급환자 263명 타지역 병원 옮겨

전국 812건 중 32% 차지 1위
김원이 국회의원 국감 자료

전문의(専門醫)가 없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조차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고 타지역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된 중증응급환자가 지난해 전남에 서만 263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사례 812건(명) 가운데 32.4%가 전남에 집중된 것으로 전국 17개 사·도에

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뇌졸중·중증의상) 가운데 2만6848명이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사유 가운데 병실 부족, 응급수술 불가 환자가 6899명(25.7%)으로, 전원한 환자의 4분의 1의 의료기관 사정으로 응급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

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병원을 지정, 의료시설·장비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충분히 지원해 해당 권역 내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의상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38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운영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 사유는 병실 부

족 등 시설부족으로 인해 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는데, 지방은 시설부족이 아닌 처치불가(의료진 부족) 사유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환자 전원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전원 중증환자의 48.6%(263명)가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환자 10명 중 5명이 병실 부족 등 시설 부족이 아니라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 상황에 중증환자가 병원을 옮겼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남은 지난해 중증환자 5582명 가운데 541명이 전원했으며, 이 가운데 263명이

처치불가로 전원했다. 광주의 경우 중증환자 8236명 가운데 352명이 전원됐으며, 이 중 의료진 부족 등 처치 불가로 전원된 사례는 40명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관련 통계가 말해주듯, 지방은 응급환자가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어 처치불가로 또 다시 대도시 병원으로 옮겨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상황에서 타지역 이송 사례가 가장 많았던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열악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연휴 뒤끝에도 코로나 확산세 주춤

11일 광주 5명·전남 5명 확진

광주·전남에서 인구 이동량이 많았던 연휴 뒤끝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산발적 감염현상이 반복된다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인 ‘위드(with) 코로나’ 준비 작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으로, 누적 5206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5명 중은 4명은 격리과정 중 유증상을 보여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3명은 직업소개소와 광산구 건설현장 관련 외국인 근로자다. 방역당국은 시민의 방역 협조와 백신 접종 완료

자 증가 등이 신규 확진자 감소 현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18세 이상 기준 인구대비 69.3%(전국 69.0%)다. 정부는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국민의 상당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번 주중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5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269명이 됐다. 하루 앞선 지난 10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는 11명이 확진됐다. 전국에서는 11일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97명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33만2816명

이 됐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09명, 경기 358명, 인천 72명 등 수도권이 총 939명(73.1%)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60명, 부산 49명, 대구 44명, 경남 33명, 경북 30명, 충남 24명, 대전 22명, 전북 20명, 강원 17명, 광주 13명, 울산·전남 각 11명, 제주 8명, 세종 3명 등 총 345명(26.9%)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전날(1594명)보다 297명 줄면서 사흘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노벨경제학상에 美 카드·앵그리스트·임벤스

노동시장 새로운 통찰
자연실험 인과관계 연구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카드, 조슈아 D. 앵그리스트, 귀도 W. 임벤스(사진 왼쪽부터)에게 돌아갔다. 3명 모두 미국인 경제학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1일(현지시간)는 올해 노벨경제학상에 데이비드 카드, 조슈아 D. 앵그리



스트, 귀도 W. 임벤스를 공동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자연실험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카드는 노동 경제학에 대한 경험적 기여를 높이 평가했으며, 앵그리스트와 임벤스는 인과 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기여로 올해의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카드는 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에, 앵그리스트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임벤스는 스탠퍼드대에 재직 중이다.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4일 생리학상을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의 수상자 선정을 마쳤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코로나(약 13억5000만원)가 주어지며 공동 수상자에게는 균일 배분된다. 한편 올해 노벨상 시상식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처럼 12월 10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아

삽니다

3천평 이상

지분환영. 010-6837-4700

경기·수도권

5억원 이상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상가건물, 다가구, 전원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건물

광주, 북구. 오지 4층 대384㎡(116평) 건물 연998㎡(302평) 아파트 집단지거리코너 먹자골목 주도로 단층6개 점포 상권 최상 보1억8천만원 월6백4십만원 매입 후 월세 상향 조정이 매16억5천만원

2 다가구 및 주택용지 ※주거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유림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 포장 배수시설 됨. 남향 경관수려 교통요지 시장인접 토지4,220㎡(1,276평) 매㎡ 6십 5만원

3 전원주택내, 10여채 단지조성용의, 선산묘터 가능

담양읍. 금성리, 덕진 산자락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스프라브층 외벽, 적벽돌. 2층연 129㎡(39평) 소형 승강기 설치 • 토지 8,098㎡(2,452평) 40여년생 소나무 명품 외 8종 정원수 및 과수 380주 포함 • 전원주택 단지 선호지 10채 조성 가능 • 본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묘지 조성이 경관 수려한 숲 속 매 7억

4 전원주택용 토지와 식재된 정원수 20년생 8종 2천주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년생 외 7종 2천여주 조성수 포함 • 전원주택 단지 조성. 물차장. 펜션 다목적 사용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 8만원

5 임야. 휴양림 30년생 편백 1만주 마을 변방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 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3,000평) 구내 웅담생 전원주택지 귀농 귀촌자 휴양지 최상 ㎡ 6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홍주 010-3454-2389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증강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신안군 공고 제2021-1115호

신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재)열람 공고

신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 ·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신 안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 명칭 : 신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나. 목표 연도 : 2030년

다. 공간적범위 : 6.7㎢(압해읍)

라. 내용적범위 :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군계획시설 등

2. 열람 내 용

신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지역 면적축소 조정 : 당초 7.5㎢ → 조정 6.7㎢ (감 0.8㎢)

- 도시지역 면적확대 조정 등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조정

3. 열람 기간

: 2021. 10. 11. ~ 2021. 10. 25.(14일간) 09:00 ~ 18:00

4. 열람 장소

: 신안군청 보건소 1층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부득이하게 열람인원 제한 및 개인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자는 열람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사 항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도시개발사업소☎ 061-240-3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끝을 때에는 무연고묘로 간주하여 임의의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보성군 영평읍 영동리 797-3번지

2. 분묘가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①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②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열람장소 : 전남 보성군 영평읍 영동리 797-3번지

7. 안치기간 : 화장 후 10년

8. 신고 처 : 010-4040-3702 박백만, 박경철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유적증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명서(최초, 재혼등본, 가첩, 사적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반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감당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공고인 : 박백만, 박경철

분묘개장 정정 공고(안치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438번지 분묘개장공고 1차는 2021. 7. 6.(화) 2차는 2021. 8. 17.(화) 게재한 공고사항 중 개장 후 안치장소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다 음 -

• 정정 전

-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102-17

• 정정 후

-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창계면 2021. 10. 12.

• 토지소유 : 비아동 상하 아산 새마을회

• 분묘가수 : 5기

• 공 고 인 : 박동열(010-3644-5963, 010-3631-1090)

분 할 합 병 공 고

(채권자 이외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글로벌엔씨(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팜호전력(이하 “을”이라 함)은 서기 2021년 10월 11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소망 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품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합병에 이르기 위해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부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서기 2021년 10월 12일

“갑”상 호 : 주식회사 글로벌엔씨

(법인등록번호 : 205411-0017594)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166

대표이사 : 전 선 민

“을”상 호 : 주식회사 팜호전력

(법인등록번호 : 204411-0012438)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16, 203호(동천동)

대표이사 : 양 계 숙

상속한정승인 공고 및 채권신고최고

피상속인 (망) 송용관 (760103-1*****)

최후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89 (장북동)

사망일자 : 2021년 7월 16일

상속인은 광주지방법원 2021년단372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여 수리하는 심판정본을 2021년 10월 7일자로 수령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채권자들은 이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 장소로 채권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제에서 제외됩니다.

채권 신고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연동로 11-8 한정승인자 : 이명자

2021년 10월 12일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光州日報 광고문의 060-2227-6600